

## 광주정신 계승·노인복지 강화 표심 잡기

각 정당 6·13 지방선거 광주·전남 공약 경쟁  
청년 일자리·농업 농촌과 지역경제 활성화도

6·1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24~25일) 일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들이 광주·전남지역 공약을 쏟아내며 표심 잡기에 나섰다.

특히 민주당의 높은 지지율 속에서 대다수 후보자가 그동안 '당내 경선'에만 치중했다는 비난을 받았지만 정당 간 '공약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정책 선거도 자리 잡아 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주요 정당의 공약에는 광주·전남의 미래 청사진이 담겨 있다.

22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민중당, 정의당 등 각 정당이 광주·전남지역 공약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각 정당이 제시한 주요 공약은 광주의 경우, 5·18민주화운동으로 대표되는 '광주 정신 활성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 전남지역은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대한 해법을 담은 공약이 많고, 농촌·농업 활성화를 위한 공약들도 대거 선 보였다.

민주당은 광주지역 주요 공약으로 ▲광주정신 계승사업 지속 ▲친환경자동차선도도시 및 생산단지 조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정상화 ▲지역특화 산업 육성 ▲광주형 일자리 혁신 상생모델 전국 확산 지원 등을 내놓았다. 전남을 겨냥해서는 ▲서남권 해조류산업 클러스터 및 해양치유단지 조성 ▲조선산업 수리·개조형으로 특화 및 육성 ▲동력분산식 열차 철도차량 정비단 유지 ▲친환경 전남 푸드플랜 수립 ▲6천만 관광객 유치 위한 관광 인프라 구축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

다. 이들 공약은 앞서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과 현 정부 국정과제에도 일부 포함된 것들이다. 5·18민주화운동의 진실규명과 '광주 정신'을 통해 광주가 '민주·인권' 도시로 자리 잡고, 노사상생 일자리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지역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게 민주당 공약의 핵심이다.

민주당은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 ▲일자리 창출 사업 ▲복지급여 중앙정부 부담 ▲청년인 광주의 미래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 ▲호남 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투자 등 7대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또 정의당은 광주공약으로 ▲청년부시장과 광주형 청년사회상속제 ▲노동계단 설립과 노동국 신설 ▲성평등위원회 권한 강화 ▲지역화폐 발행과 농민기본소득 도입 ▲도시공원 단계적 매입 등을 광주 공약으로 내놨다. 전남 공약은 ▲인구 절벽 인구감소 해결 ▲비정규직 문제 해결 ▲공공의료 확충 등이다.

민중당도 ▲노동이 존중받는 지방자치 실현 ▲청년의 오늘을 보장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 및 통일농업 ▲성평등 한 지역 사회 조성 ▲상생의 지역 경제 ▲복지 확대로 경제적 불평등 해소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실현 등 광주·전남지역 10대 공약을 내놨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는 무상급식을 앞세운 복지 분야, 2014년 지방선거는 세월호 사고에 따른 생활안전 문제가 주요 의제로 부각됐는데 이번 지방선거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각 정당이 중요 공약으로 내놓았다"면서 "광주의 5·18과 전남의 노인, 농촌·농업활성



"꼭 투표하세요" 부처님 오신 날이자 징검다리 연휴 마지막 날인 22일 오후 광주 패밀리랜드 대관람차 앞에서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6·13 지방선거 투표를 장려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 홍보 활동을 위해 높이 75m로 전국 최대 규모인 대관람차에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화 등 지역 여건에 맞는 공약이 많다는 것도 특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바른미래당도 조만간 광주·전남지역 공약을 발표

할 예정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학교·학생·농어촌 마을 모두를 키우는 방향으로”

고석규·오인성·장석용 전남교육감 후보 한목소리

전남도교육감 선거에 나선 고석규·오인성·장석용 후보는 22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농어촌 학교·폐교 문제·도농 학교 간 교육의 질 격차 등을 당면 과제로 인식하면서 “전남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학교와 마을, 학생 모두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인터뷰 5면〉

이들은 이날 광주일보와 서면인터뷰에서 “농어촌 학교는 마을 공동체의 중심점 역할을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예산 및 인력 배분, 교사역량 강화 등을 바탕으로 농어촌 학생들의 실력 저하를 막고, 학교 경쟁력을 키우는 데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세 후보자는 그러나 교육감이 되려는 이유와 자신의 강점 등에서는 차이가 뚜렷했다.

목포대 총장 출신의 고 후보는 교육감 선거 출마 이유에 대해 “교육감은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자리로서, 전남

아이들이 출발부터 나은 교육을 받아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했고, 강점으로 “전국적인 네트워크”, “문재인 정부와 연관성”을 강조한다.

나주교육장을 지낸 오 후보는 “평교사, 대학교수는 훌륭한 교육자가 될 수는 있어도 교육행정은 교육행정을 직접 수행해 본 교육행정 전문가가 잘 할 수 있다”며 “학생 교육과 연구, 교육행정을 두루 경험한 내가 적임자”라고 자신했다.

평교사 출신의 장 후보는 “37년간 전남에서 평교사로 근무했다. 전교조 전국 위원장과 교육시민단체 대표를 맡아 참교육을 실천해온 현장교육 전문가는 바로 나”라며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에 동참하고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전남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출마했다”고 밝혔다.

“다문화학생 1만명 시대”와 관련해 세 후보자는 “전남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다문화학생 교육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다문화교육 정책 수립에 나서고, 교사의 행정업무 감축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공언했다.

섬마을 학교가 겪고 있는 방과후 시간제 교사 구인난 등 난제 해결과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기간제 교사 자격안화 등 지역 실정에 감안한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한미정상 오늘 배석자 없이 단독회담

문대통령 북핵 해법 중재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21일(이하 현지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해 1박4일 간의 공식실무방문 일정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2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워싱턴 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 조준제 주미 대사와 수전 순턴 미 국무부 동아태차

관보 대행 등으로부터 영접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영빈관에서 하루를 묵은 뒤 22일 오전 미국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담당하는 주요 인사들을 접견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오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취임 후 네 번째 한미정상회담을 한다. 단독회담을 하고 나면 주요 참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회담을 겸한 업무 오찬을 갖는다.

단독회담과 확대회담에서 양 정사는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과 관련한 의견을 조율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방법론과 관련해 미국이 선호하는 일괄타결 프로세스와 북한의 단계적·동시적 해법 사이의 접점을 찾는 데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회담 후 조미수호동상조약 체결 136주년을 맞아 주미 대한제국공사

관을 방문, 박정란 대한제국 초대공사 및 공사관인 이상재·장봉환의 후손을 격려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워싱턴을 떠나며 한국시각으로 24일 새벽 서울공항으로 귀국한다. /임동욱기자 tuim@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64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8]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 알립니다

광주일보 창간 66주년...제작 시스템 개편 힘찬 도약  
금남로 3가 SC제일은행 빌딩 사옥으로 이전합니다

광주일보가 창간 66주년을 맞아 오는 25일 금남로 3가 SC제일은행 빌딩으로 이전합니다.

광주일보의 새 주소는 우편번호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9~10층)입니다. 25일 신문을 제작하지 않는 날을 이용해 이전을 마칠 예정입니다. 본사는 현재 입주해 있는 무등빌딩에서 24일까지 단 근무하며, 27일부터는 SC제일은행 빌딩 사옥으로 옮겨 업무를 시작합니다.

전화는 종전(대표전화 062-222-

8111)과 동일하며, 다만 사옥 이전 관계로 25~26일에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광주일보는 사옥 이전을 계기로 힘찬 도약을 위한 제2장간의 의지를 담아 제작 시스템을 완전 개편, 지면의 글씨를 종전보다 키위 독자들이 더 편하게 신문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독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한글같은 사랑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광주일보는 앞으로 더욱 새로워진 모습으로 찾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광주일보

2018년 무안공항직항

이제 편리하게 가까운 무안공항에서 조이투어와 함께 하세요! 짜짜우~~~

# 일본기타큐슈,오사카,다낭,방콕

**가까운 무안에서 일본 기타큐슈 온천여행**

5/13일부터 주 3회 출발 / 화,금,일 정기편 확정

운항스케줄: 오후(화,금,일) 무안-기타큐슈 18:00-19:10 / 기타큐슈-무안 19:40-20:50

**기타큐슈 (일출발) 한정 특가**

2박3일 호텔1박 / 고급 온천별장1박 399,000 원~  
2박3일 호텔1박 / 온천료관1박 499,000 원~  
3박4일 호텔2박 / 고급 온천별장1박 599,000 원~

아이구치폭격 699,000 원~

**무안 → 북해도 전세기 취항 !!**

7/18부터 ~ 8/21까지 총 19회

7월 18,21,24,25,27,28,30,31 8월 2,3,5,6,8,9,11,12,14,17

[골격 준특급 + 특급] 1,290,000~  
[고급격 특급] 1,450,000~  
[골프 특급] 1,790,000~

**무안 → 블라디/하바롭 전세기 취항 !!**

7/11부터 ~ 8/16 까지 총 13회

[항공 3성급] 1,090,000~  
[실속 5성+3성급] 1,190,000~  
[특격 5성급] 1,350,000~

국성수가 요근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무안 → 다낭 직항전세기** 3박4일(화) / 3박5일(금)

2018. 5. 18. 이후 (매주 화, 금 출발) 짜짜우~~~

VN 베트남국영항공사 (스카이팀) 차별화된 기내서비스

A-321-200 비즈니스 13석 이코노미 161석  
기내식 음료, 맥주,기내담요,베개 비디오상영

화출발	무안-다낭 08:05-10:40 / 다낭-무안 14:40-20:30
금출발	무안-다낭 21:35-00:10 / 다낭-무안 01:05-06:55

[골드] 다낭,후에,호이안 4일 699,000~  
[골드] 다낭,후에,호이안 5일 769,000~  
[프리미엄] 다낭,후에,호이안 4일 799,000~  
[프리미엄] 다낭,후에,호이안 5일 969,000~

※다낭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포함사항이 다르오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무안 → 방콕 파타야 정기편 제주항공**

준특급 : 649,000원~ 특급 : 699,000원~ (6/20출발확정)

※ 임국정부인허가조건 ※ 운항스케줄이 항공사 및 전제지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출발 날짜와 인원 수에 따라 상품 가격이 다르오니 홈페이지 및 전화상담을 통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 업체 등록번호 : 제동다2003-1호

※ 고풍조각 : 여행경비 1인 기준, 여행자보험 가입(여행자보험: 1억원, 국내보험 5천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 : 항공 및 선박, 전동버스 / 중 지역. ※ 최소 출발인원 : 상품에 따라 다름. ※ 참가 요건 :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보험 가입 업체. ※ 예약시 계약서 (최소 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경비업등록: 기사/기타의 표시, 선택관광, 각종 배리어블 별도.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 조이투어